

2014년 5월 19일 보낸 편지입니다.

'작가의 고독'에 대해서
'作家の孤独'について

헤밍웨이는
ヘミングウェイは

195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1954年ノーベル文学賞を受賞した

수상식에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특유의
授賞式に参加はできなかったが、特有の

간결하고 절제된 문장의 수락연설을 썼는데,
簡潔で、節制された文章の受諾演説を書いたが

특히 작가의 고독에 대한 통렬한 구절이 인상적이다.
特に作家の孤独について、痛烈な一節が印象的だ

"그는 홀로 작업을 해야 하고, 정말 괜찮은 작가라면
"彼は、一人で作業をしなければならず、本当に立派な作家なら

영원, 혹은 그것의 부재로 인한 문제에
永遠、あるいはその不才による問題に

매일 홀로 맞서야 한다."
毎日、一人で向かい合わなければならない"

- 제인 글리슨 화이트의 《내 영혼을 파고든 소설 50》중에서 -
- ジェーン・グリーソン=ホワイトの〈私の魂を穿つ小説50〉より -

* 역시 헤밍웨이입니다.
* さすが、ヘミングウェイです

작가는 홀로 맞서야 합니다.
作家は一人で向かい合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어느 누구가 대신해서 글을 써줄 수 없습니다.
ある誰かが、変わって文字を書くことができません

그 누군가가 대신해서 삶을 살아줄 수 없습니다.
その誰かが、かわって人生を生きることができません

세상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지만 홀로 맞서
世の中の人とともに、生きるが一人で向き合い

절대 고독의 높은 돌담벽을 넘어서야
絶対孤独の深い、石垣の壁を乗り越え

괜찮은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立派な作家になることができます。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立派な人生を生きることができます。

절제 (節制)

[명사] 節制.

彼のノーベル平和賞受諾演説 발음 재생

그의 노벨 평화상 수락 연설

통렬하다 (痛烈—)

[형용사] 痛烈だ; 手厳しい.

구절 (句節)

[명사]

句と節.

句; 文章や言葉の—くぎり.

영원 (永遠)

[명사] 永遠; 永久; とこしえ; 久遠; 千代 [아어(雅語...]

혹은 (或—)

[부사] あるいは; または.

부재 (不才)

[명사] 不才.

맞서다

[자동사]

向かい合って立つ.

対立する; 張り合う; 齒向かいあう.

(ある状況に) 直面する.

파고들다

[자동사] [타동사]

深く入り込む.

潜り込む.

深くしみこむ; しみとおる.

돌담

[명사] 石垣; 石塀.

2014년 5월 20일 보낸 편지입니다.

기도방
祈禱場

거울 떼고
鏡を外して

달력을 떼고
カレンダーを外して

옷걸이를 떼고
ハンガーを外して

전등을 떼고
電燈を外して

책을 내놓고
本を出して

그릇을 내놓고
皿を出して

가구를 내놓고
家具を出して

못을 뽑고
釘を抜いて

홀로
一人で

방에
へやに

들어가다
入る

- 김정묘의 시집 《하늘 연꽃》에 실린 시 〈기도방〉 (전문)에서 -
- キム・ジョンミョの詩集〈空の花〉に掲載された詩〈祈禱場〉(前文)より -

* 웅달샘에도
* 小さな泉にも

저만의 기도방이 있습니다.
私だけの祈禱場があります

시간을 내려놓고
時間を置いて

생각도 내려놓고
考えを置いて

꿈도 내려놓고
夢を置いて

홀로 들어가
一人で入って

눈을 감습니다.
目を閉じます

눈물이 납니다.
涙が出ます

거울
[명사]
鏡.
龜鑑; 鑑; 手本.

떼다1
[타동사]
離す.

a(본디 자리에서) 元の所から離れるようにする; (取り)外(...
(사이를) 間をあける; 間合いを取る; 引き裂く[離す].

옷걸이
[명사] 着物を掛ける諸具(‘衣桁·衣紋掛け·洋服...

2014년 5월 21일 보낸 편지입니다.

'눈에 드러나는 상처' 보다...
'目に見える傷' より...

사람들에게는
人々には

눈에 드러나는 상처보다
目に見える傷より

더한 고통이 숨어 있곤 했다.
さらに苦痛が隠れていたりする

그런 고통은 대부분 당사자도 인식하지
その苦痛は、大部分当事者も認識

못할 때가 많다. 하지만 잘 견뎌낸 사람들은
できない時が多い。しかし、ちゃんと耐えた人々は

삶을 다르게 받아들인다. 자기 자신에게
人生を違って受け入れる。自分自身に

더 솔직해지고, 자신을 더 수용할 수
さらに正直になり、自分をさらに受容できる

있게 된다.
よくなる

- 이승욱의 《상처 떠나보내기》 중에서 -
- イ・スンウクの〈傷から離れる〉より -

*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 傷のない人はいません

아프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痛くない人は、ただ一人もいません

그 상처와 고통이 겉에 드러나느냐, 숨어 있느냐의
その傷と苦痛が、表に現れるか、隠れているかの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 보다
違いがあるだけです。'目に見える傷' より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 이 더 무섭습니다.
'目に見えない苦痛' が、もっと怖いです

밖으로 드러내 사랑의 손길로
外に現して、愛の手で

어루만져줘야 합니다.
な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

어루만지다
[타동사]
なでさする; なでる; さする.

20140521.txt

いたわる；慰撫する.

2014년 5월 22일 보낸 편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절대 법칙'
揺るがない'絶対法則'

"인생은
"人生は

마음에 그린대로 이루어진다.
心に描くままにかなう

강렬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強力に思うことが、現実に現れる"という

이 '우주의 법칙'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라.
この'宇宙の法則'を何より大切にしろ

이런 이야기를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このような話を超自然的現象だと考える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내가 지금까지
人もいるだろう。しかし、これは私が今まで

살아온 삶 속에서 겪은 수많은 체험을 통해
生きてきた人生の中で、経験した数多くの体験を通じ

확신하는 '절대 법칙'이다.
確信する'絶対法則'だ

- 이나모리 가즈오의 《카르마 경영》 중에서 -
- 稲森和夫の<カルマ経営>より -

* '마음에 그린대로 이루어진다.'
* '心に描くままにかなう'

저 역시 수많은 체험을 통해 확신하게 된
私もまた数多くの経験を通じ確信した

'우주의 법칙', 흔들리지 않는 '절대 법칙'입니다.
'宇宙の法則'、揺るがない'絶対法則'です

마음에 그리는 그림을 우리는 '꿈'이라 부릅니다.
心に描く絵を我々は'夢'と呼びます

그 꿈이 이루어진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その夢がかなった後に、何をするのか

그 너머까지의 그림이 '꿈너머꿈'입니다.
その先までの絵が'夢を超えた夢'です

그린대로 이루어집니다.
描くままにかないます

초자연적
[관형사][명사]超自然的.

2014년 5월 23일 보낸 편지입니다.

기적의 시작
奇跡の始まり

꿈 목록을 적고
夢の目録を記録して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있다.
驚くべき奇跡を体験した人もいる

군대에서 사고로 척추를 다친 이가 꿈 목록을
軍隊の事故で、脊髄をけがした彼が夢の目録を

쓴 뒤 다시 걷게 되고, 암으로 아버지를 잃고
書いた後にもう一度歩くようになり、ガンで父を失って

자신도 병원에 있던 이 역시 꿈 목록을 쓰고
自分も病院にいた彼も、やはり夢の目録を書いて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하면서
自分が本当にしたかったことに挑戦し

의사들이 믿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医者が信じることができないほど、早く

건강을 회복하기도 했다.
健康を回復した

- 김수영의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중에서 -
- キム・スヨンのかあなたの夢は何ですかより -

* 저 또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 私もまた驚く奇跡を経験します

'고도원의 아침편지', '아침편지 문화재단',
'コドウオンの朝の手紙', '朝の手紙文化財団'

'몽골에서 말타기', '깊은산속 웅달샘'... 많은 이들이
'モンゴルで馬乗り', '深い山中の小さな泉'...たくさんの人々が

황당하게 여겼던 꿈 목록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
荒唐無稽におもった、夢の目録が、今は現実になり

또 다른 꿈의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またほかの夢の架け橋になっています

기도하듯, 꿈 목록을 적는 순간부터
祈るように、夢の目録を書く瞬間から

기적은 시작됩니다.
奇跡は始まります

적다1
[타동사] 記録する; (書き) 記す; 認める [노인어].

20140523.txt

척추 (脊椎)
[명사] 脊椎. (=척주(脊柱))

황당 (荒唐)
[명사] 荒唐; 話や考えによりどころがなく, とりとめのない...

2014년 5월 24일 보낸 편지입니다.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김웅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キム・ウンニム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평평 울고 싶은가
わんわん泣きたいのか

누군가의 꿈에 안겨 평평 울고 싶은가.
誰かの夢を抱いてわんわん泣きたいのか

인생의 풍파를 만날 때, 힘든 현실을 피하고 싶을 때
人生の荒波に会うとき、つらい現実を避けたいとき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가. 비슷한 힘든 인생의
誰かの慰労と、激励が必要か、同じく辛い人生の

여정을 건넌 멘토나 인생 선배를 찾아보길 바란다.
旅情をこえたメンターや、人生の先輩を探してみしてほしい

그가 부모든, 형제자매든, 친지 어른이든,
それが、両親でも、兄弟姉妹でも、知り合いの大人でも

스승이든 상관없다. 인생을 먼저 살아본
師匠でも構わない。人生をまず生きてきた

사람의 자리를 대신할 순 없다.
人にとって変わることができない

- 전옥표의 《지금 힘들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중에서 -
- ジョン・オクピョの〈今辛いなら、よくやっているのだ〉より -

* 울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인가.
*泣きたいときが、1、2回ですか

인생은 언제든 힘들고 지치기 십상이다.
人生は、いつでもつらくつられるのか十中八九です

돈, 명예, 권력, 나이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다.
お金、名譽、権力、年齢が多い少ないは関係ない

그럴 때는 울고 싶은 만큼 울고, 다시 일어서라고
そんな時は、泣きたいほど泣いて、また立ち上れと

권하고 싶다. 나 자신에게도, 이웃에게도. 지금 당장
勧めたい。私自身にも、隣人にも、今すぐに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만 같은 주위에 도움을 구해 보자.
似たような経験しただけ、周りに助けを求めてみよう

그리고 다시 일어서자, 슬픔을 그냥 인정한 채로.
そして、もう一度立とう。悲しみをただ認めたまま。

평평2

[부사]

水などが勢いよく流れ出るさま: どくどく(と); じゃあじ...

雪などが盛んに降るさま: こんこん.

풍파 (風波)

[명사]

風波.

(거친 파도) 荒れ; 波風.

(분란) 争い; もめ事.

건너다

[자동사] [타동사]

(向こう側に) 渡る; 越える; 横切る.

(口から口へと) 伝えられる; 伝わる.

(食事・順序などを) 抜かす.

형제자매

[명사] 兄弟姉妹; 連枝.

친지 (親知)

[명사] 知り合い; 知るべ; 知人.

지치다1

[자동사] ぐたびれる; ばてる[속어]; (へとへとに) 疲れる; へたばる[속어].

명예 (名譽)

[명사] 名譽; 榮譽; 誉れ.

권하다 (勸—)

[자동사] [타동사] 勧める.